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전문공보관 형사1부장 박상수

전화 054-429-4224 팩스 054-429-4675

보 도 자 료

2024. 6. 12.(수)

제 목

“더 싸게 대출해준다” 속여 서민들 돈 12억원 가로챈 대부중개업자 직접 구속 기소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등(제11조 제1항)

-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지청장 최재아)은 대출 이력이 있는 서민들을 상대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소상공인 등 피해자 18명으로부터 대출상환금 등 명목으로 약 12억 2천만 원을 가로챈 피고인을 직접 구속하여 오늘(6. 12.) 기소하였습니다.
-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근무하던 대부중개업체에서 확보한 ‘대출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악용, “기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주겠다.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배송기사, 자영업자 등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사건으로,
 - 검찰은 서울, 인천, 광주 등 전국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피고인의 동종 사기 9건을 한꺼번에 이송받아 병합 수사하여, 경찰에서 송치된 범죄사실에 피해자 11명과 피해금액 4억 4,000만원까지 추가하는 등 범행 전모를 밝혀 직접 구속 후 기소하였습니다.
- 또한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구속되면 돈을 못 갚으니 합의해 달라”고 종용한 사실까지 모두 밝혀내 피고인을 직접 구속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감사편지도 받았습니다.
-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서민들을 상대로 한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하여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 : A (남, 28세, 경북 김천시 소재 'B 대부중개' 운영)
 - ※ '21. 초부터 'C 대부중개'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독립하여 '21. 6.경 'B 대부중개' 설립
-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은 'C 대부중개'에서 퇴사 시 '대출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나온 것을 기화로 'B 대부중개'를 설립한 다음, 기존에 대출 이력이 있는 고객들을 상대로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 '22. 7. ~ '24. 2. 피해자 총 18명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및 대출 진행비를 입금하면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속이는 방법으로 합계 약 12억 2천만 원을 편취하여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기

2

수사 경과

- '24. 3. 구미서, A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법원, 영장 기각)
 - ※ 경찰은 범죄사실을 피해자 7명, 편취금액 합계 약 7억 8천만 원으로 특정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주거 분명 등을 이유로 기각하였음
- '24. 4. 9. 구미서, 불구속 송치
- '24. 4. ~ 5. 검찰, 전면적 보완수사

- 서울, 인천, 광주 등 전국 6개 검찰청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피고인의 동종 대환대출 사기 사건 9건을 이송받아 한꺼번에 수사 실시
 -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의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하여 구속전 피의자심문시 현출
 - 계좌 8개의 약 2년치 거래내역을 분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 중 일부를 불법 도박에 사용하거나 자신의 다른 채무에 '돌려막기'한 사실 확인
- '24. 5. 24. 검찰, A 직접 구속
 - ※ 경찰 송치 사건에 추가로 다른 검찰청에서 이송받은 9건을 병합하여, 전체 범죄 규모(피해자 18명, 약 12억 2천만원)을 전부 밝혀 내 구속
- '24. 6. 12. A 구속 기소

‘대출 고객 데이터베이스’의 개인정보를 악용한 계획적 수법

- 피고인은 ‘B 대부중개’를 운영하기 전 근무했던 ‘C 대부중개’에서 미리 확보한 명단상 고객들에게 전화하여 ▲“정부 지원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있다”라고 유인하여 대출진행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거나 ▲“기존 대출금을 나에게 지급하면 대신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 이 과정에서 ‘B 대부중개’가 한국대부금융협회에 정식 대부중개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소상공인, 퇴직자 등 서민들을 상대로 한 악의적 범행

- 피고인은 개인 배송기사, 영세 자영업자, 퇴직자 등 이미 채무가 있는 피해자들이 더 이상 1, 2 금융권의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진행비 등의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게 하거나 속칭 ‘카드깡’을 시켜, 형편이 어려운 피해자들이 카드값, 휴대전화 미납요금 등으로 고통받게 하였습니다.
-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심각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그 중에는 피고인이 대출을 해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자녀의 결혼을 위해 모아둔 돈까지 모두 송금하거나, 약 5억 3,0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당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던 사건들을 병합 수사하여 피고인 직접 구속

- 이 사건은 전화를 이용한 범행 수법상 전국에 피해자가 흩어져 있고 수사도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로 계속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서울, 인천, 광주 등 전국 6개 검찰청에 산재되어 있는 사건 총 9건을 모두 모아서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전체적인 범행 규모와 수법 등 전모를 밝혀 피고인을 직접 구속하였습니다.
- 특히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① 경찰 수사 당시 피해자 7명, 합계 약 7억 8천만원으로 특정된 피해 규모가 피해자 18명, 합계 약 12억 2천만원으로 확대되었고 ② 피고인이 편취한 돈으로 불법 사설 도박을 하거나 다른 채무를 '돌려막기'한 사실, ③ 피해자들을 상대로 '구속되면 돈을 안 갚을 테니 구속되지 않게 합의서를 써 달라'라고 요구하며 오히려 피해 진술을 막은 사실까지 모두 밝혀 냈습니다.

※ 수사 과정에서 약 2억원을 편취당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주고, 애타는 심정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큰 상처를 입은 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고 살아야 하는 희망도 가지게 되었다”라는 내용의 감사편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감사편지 별첨).

4 의의 및 향후 계획

- 이 사건과 같이 전화로 '저금리 대환대출', '정부 지원 소상공인 대출' 등을 권유받을 경우, 비정상적인 영업으로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검찰은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절박함을 이용한 대출 사기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님께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에 많은 업무로 바쁘실 텐데

저처럼 모자란 부족한 사람의 영혼을 이야기할

득이하시려, 애타는 심정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T.V나 신문에서만 볼 수 있었던 감사님께

사실은 속삭이듯 말씀드리면서, 큰소리를 입은

저로서는 따듯한 예로가 되었고, 살아야 하는

희망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감사님의 정의로운 성품을

정생전처럼 묵묵히 갑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2024. 5. 31.